

세종시 학생들, 전국과학창의융합대회서 ‘두각’

과학적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탐구·실험 중심 세종 과학교육의 성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원장 강양희, 이하 세종교육원)은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겨루는 다수의 전국과학창의융합대회에서 올해 세종시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하는 제42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다정고 송민준 학생(고2) 대통령상, 여울초 임유진 학생(초4) 특상, 세종여고 김현경 학생(고2) 우수상, 가락초 류현석 학생(초6)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42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에서는 다정고 장정희 교사(송민준 학생 지도교사) 특상, 여울초 고현국 교사(임유진 학생 지도교사)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제67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고운고 맹지영(고2), 김수민 학생(고1), 반곡고 정선아 학생(고1) 특상, 금남초 윤석현(초6), 신혜인 학생(초4), 고운초 임서윤(초6), 김아현 학생(초6)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거뒀다.

또한, ‘한화사이언스챌린지 (Science Challenge) 2021’ 대회에서 세종과학예술평영재학교 백건우(고2), 조재인 학생(고2)이 자동차 변속기의 작동원리와 태엽 스프링을 적용한 친환경 동력 리어카 제작법을 제안해 전국 270팀, 558명 고등학생이 지원한



▲ 제42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다정고등학교 (오른쪽)송민준 학생, 제42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에서 특상을 수상한 (왼쪽)장정희 교사

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3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는 정전용량 방식의 비접촉식 범용 터치 포인터 입력 장치로 세종과학예술평영재학교 한지희 학생(고2) 국무총리상, 한솔고 이한결 학생(고2), 다정고 서유리 학생(고2)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한국창의력대회에서는 ‘단풍나무 씨앗의 자동 회전 원리를 이용한 종이 회전 낙하

장치 제작 및 회전자 측정’이라는 주제로 세종과학예술평영재학교 육진석 학생(고2)이 최우수상을 거머쥘었다.

과학 원리를 적용해 생활 속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창의·융합 능력을 겨루는 학생과학탐구올림픽에서는 해밀초 유상현 학생(초5) 금상, 세종과학예술평영재학교 배예성 학생(고1) 은상, 고운중학교 서지우 학생(중2) 동상, 부강초 권준혁(초5), 고운중 박동호(중2), 세종대성고 광수현 학생(고1)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

심과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인 사고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제39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토론 종목에서 세종과학예술평영재학교 윤건호(고2) 학생이 대상, 한솔초 이채영(고6) 학생, 양지중 양서아(중2)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후원하는 ‘제7회 원자력 창의력 대회’ 중등부에서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핵폐기물의 처리 방안, 원자력 활용 자가 발전 우주선, 우주 방사선 탐지 장치 등 우주 시대를 향한 원자력 연구 개발을 제안한 나성중 티끌탐이 대상, 원자력을 이용해 인공태양 개발, 인공 블랙홀, 우주 택시, 리얼 로켓 배송을 제안한 우주정복팀이 동상의 영광을 누렸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개최한 ‘2021년 지능형 과학실 구축운영 사례 공모전’에서는 한솔초 정인경 교사와 한솔고 이철훈 교사가 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은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탐구 활동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창의융합형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충북교육청, ‘행복교육배움길’ 특강 연다

‘교육트렌드, 글쓰기, 언어감수성, 사회심리’등 11개 강의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이 1~2월 겨울방학 중에 ‘행복교육배움길 특강’을 원격화상 회의 줌(ZOOM)으로 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2022교육트렌드, 교육법, 글쓰기, 언어감수성, 사회심리’ 등 총 11개 강의가 오는 2월18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특강은 책의 저자를 강사로 초청해 책에 담긴 이야기를 직접 듣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강사진에는 김성근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글쓰기 전문가 백승관·강원국, 청주교대 이혁규 총장, 고려대 신지영 교수, 김태형 심리상담소 소장, 참샘스쿨 김차명 대표 등이 참여한다.

1월 5일 진행된 첫 번째 특강 ‘MZ세대가 묻고 선배세대가 답하다’는 김성근 부교육감이 강사로 그의 저서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2’에 대해 대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첫 특강은 팬데믹시대 생활 교육, 학력격차, 고교학점제, 학교 혁신, 미래교육 등의 폭넓은 이야기

를 나눴다.

이후 10일에는 백승관 교사의 글쓰기가 진행됐으며, 오는 2월 17일 김태형 소장의 가짜 자존심 권하는 사회 특강까지 다양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희행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교육과 사회에 교직원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철우 기자

코로나19 걱정없이 집에서 편하게 책 읽어요

세종시교육청, 전자도서관 신착 전자책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자도서관은 세종시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들의 비대면 독서생활을 위해 올해 전자책 2,765종, 13,820여점을 새롭게 구입해 제공한다.

이번 신간 전자책으로는 이미에 작가의 판타지 ‘달리구트 꿈 백화점’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가 포함됐으며, 중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의 독서 흥미 유발을 위한 오주영 작가의 ‘빨간 여우의 북극 바캉스’등 그림책도 다수 구입됐다.

2015년 시작한 전자도서관은 이로써 42가지 마이의 색깔, 오은영 박사의 화해 등 전자책 12,258종, 61,290점을 보유하게 됐다.

전자책은 세종시교육청 소속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학교 누리집과 세종 Smart-아이 회원 아이디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한 명당 최대 3권, 10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기별 자세한 이용 방법은 세종시교육청 Smart-아이 전자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은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전자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책을 지속 충원할 계획이니,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전자도서관 인기 대출 자료는 달리구트 꿈 백화점, 시간을 파는 삼정, 거인이면 뭐 어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민준 기자

충남교육청, 재난안전 대비능력 전국에서 인정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1년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시·도교육청 최초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관리 표창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법정교육 이수율 △기관 자체 재난 대비 역량 △체계적인 재난 교육 편성 여부 등을 평가했다.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 산하 유일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

기관인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교육 이수자 이력 관리를 한 결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법정교육 이수율을 100%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모든 분들의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한 노력 덕분에 올해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관련 종사자 교육관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안전교육과 재난훈련 등을 다채롭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

대전교육청, 2024년까지 모든 학교 지능형 과학실 조성

118억여 원을 투입해 첨단과학기술 기반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구축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관내 모든 학교 301교에 118억여 원을 투입해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과학실은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및 탐구 역량 함양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기본으로 갖추고 VR, IoT 센서 기기, 시뮬레이션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탐구활동이 가능한 과학실이다.

교육부는 2020년 5월 ‘제4차 과학교육종합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대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2년 2월부터 빅데이터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학탐구할 동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지능형 과학실 ON’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과 교수학습 혁신에 대한 요구에 발맞춰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탐구활동과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과학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22년 103교(40억천만원), 2023년 102교(39억6천만원), 2024년 96교(37억 3천만원) 등 연차별로 관내 모든 학교에 교당 1개 과학실에 대해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한혁 과학직업정보과장은 “미래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형 사회로 이번 지능형 과학실 구축이 과학적 소양을 함양한 우수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현산가금현 작가의 네번째 시집 『억새가 너를 닮았다』

사람은 성실할수록 자신감을 얻게 된다. 성실할수록 태도가 안정되어 간다. 성실할수록 정신을 자각하게 된다. 성실할 때에만 자기가 엄연히 이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게 된다.

‘한잔술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리운 것이다.